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3, Vol. 18, No. 4, 477-497

초등학생의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관한 남녀 차이 연구

조 주 연 김 명 소†
호서대학교 인재개발학과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1) 성별에 따라 학업소진과 학업열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2)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의 주요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남녀 차이를 파악하며, (3) Schaufeli와 Bakker(2004)의 요구-자원 모형을 학업장면에 적용했을 때 남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탐색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 초등학생 4-6학년 521명에게 한국형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KABS-ESS), 학업열의척도 및 관련 척도들을 실시하였다. 첫째,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대한 성차분석 결과, 학업열의에서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소진의 경우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소진의 하위 구성요인별로 살펴보면 남녀차이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회피, 정서적 소진, 신체적 소진에서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둘째, 학업소진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에서 남녀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은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과다, 교사 지지, 부모성취압력, 자아탄력성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자아탄력성, 부모성취압력, 학업과다, 부모 지지, 자기조절학습전략 순으로 주요 변인이었다. 또한, 학업열의를 준거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소진과 유사하게 남학생의 학업열의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은 자기조절학습전략, 자아탄력성, 교사 지지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전략, 교사 지지가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학업장면에 적용한 결과, 모형의 부합도가 남녀 모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도출되어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초등학생, 학업소진, 학업열의, 남녀 차이, 요구-자원 모형

† 교신저자 : 김명소,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산업심리학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76(안서동)
E-mail : mskim@hoseo.ac.kr

www.kci.go.kr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 1위가 '학업'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고, 과도한 학습량과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주요 원인으로 밝혔다(뉴스와이어, 2013).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재단(2010)의 아동·청소년 안전 및 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성공을 위해 초등학생의 88.2%가 학교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학생(67.5%), 고등학생(67.5%)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 경쟁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미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 학업이나 과외학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긴장, 짜증, 근심, 부담감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로 정의된다(이미자, 2009).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불안이나 우울(최태정, 이은희, 서미정, 2000) 및 적대감과 대인예민성(김현희, 2009) 등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살(고재홍, 윤경란, 2007; 박혜정, 2009)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성적과 진학문제(53.4%)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순위인 '자살'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한 긴장, 짜증, 근심, 부담감과 같은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 공부로 인해 완전히 지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이 속한 가족과 학교, 사회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김대현, 2011),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소진의 반대 개념인 학업열의를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변인의 구성요인들과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통계적 변인들에 따른 학업소진과 학업열의 차이 연구나 이들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일반계 중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은 여학생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고나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 재학생 비율도 여학생이 더 많아지면서 내신경쟁이 남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김지영과 서영숙(2011)의 연구결과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국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초등학생 5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태도가 우수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과의 성적 격차가 심화된다(Cornwell, Mustard, & Parys 2001). 한편 영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도 중등교육자격시험 상위 득점자 중 여학생 비율이 더 높았고 대학 입학과 졸업 성적도 여학생이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일보 2013 재인용). 학업장면에서 이러한 성

www.kci.go.kr

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 차이를 파악하고, 남녀별로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탐색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로 학업장면의 학생들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열의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의 개념 및 측정

소진은 최초로 Freudenberger(1974)에 의해 의욕을 잃고 피곤, 절망, 탈진 증세를 나타내는 정서적・신체적 고갈 상태라고 정의되었으며, 특히 사람들과 집중해서 장기간 관계를 맺는 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반목적인 압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정신적 피로 상태라고 정의된 바 있다(김남기, 2011). 소진의 대표적 연구자인 Maslach과 Jackson(1981)은 소진을 정신적으로 과부하 됨을 느끼고 자신의 일로 인해 지쳤다는 느낌을 갖는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냉담해지는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그리고 자존감의 감소로 인해 개인적인 성취에 대해 부적절함을 느끼는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를 주된 증상으로 수반하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개발하였다(Maslach & Jackson, 1981).

이후 Schaufeli, Martez, Marques Pinto, Salanova 및 Bakker(2002a)는 이 척도의 학생 버전 즉,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제작하여 탈진(exhaustion), 냉소(cynicism), 효능감(efficacy)의 3개 하위요인을 측정하였다. 학업소진 연구자들에 의하면, 학업소진이란 학업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만성적인 학업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량 그리고 다른 심리적 요인에 의해 학업에 대한 심리적 피로와 정서적 고갈 및 냉소를 보일 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개인적 성취감이 결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Gan, Shang & Zhang, 2007; Schaufeli, et al., 2002a; Yang, 2004; 이상민, 2012 재인용).

국내의 경우, 이영복과 이자영, 이상민을 중심으로 MBI-SS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국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업소진에 대한 구성요인 탐색과 척도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탈진, 냉담, 효능감의 MBI-SS의 3요인에 '반감'과 '불안'의 요인이 추가된 5요인 척도(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를 개발하였고, 추후 '불안'을 제외시킨 4요인으로 구성된 한국형 학업소진척도(Korean Academic Burnout Inventory: KABI)를 타당화하였다(이자영, 이상민, 2010). 이후 조주연과 김명소(인쇄 중)는 위 척도를 초등학생들에게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FGI와 설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소진 특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7개 요인(정서적 탈진, 신체적 탈진, 인지적 탈진, 반감, 회피, 냉소, 비효능감)으로 구성된 한국형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Korean Academic Burnout Scale-Elementary School Students: KABS-ESS)를 개발하였다.

한편, Seligman의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지

www.kci.go.kr

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대두된 개념이 열의(engagement)이다. 학업열의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학업에 대해 집중하게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하며, 높은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aufeli, et al.; 이자영, 이상민, 2012 재인용). Schaufeli, Salanova, Gonzailes-roma(2002b)은 학업열의의 구성요소를 활기(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로 구분하고, 17문항으로 구성된 열의척도(The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를 개발하였다.

활기는 학업을 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에너지나 정신적 회복을 보일 뿐 아니라 기꺼이 학업에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헌신이란 공부에 대한 중요성, 가치, 도전 등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몰입은 공부를 하는 동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지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과 학업을 분리시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chaufeli et al. 2002a; 2002b). 이자영과 이상민(2012)은 이 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열의의 구성요소를 확인한 결과, 위의 3개요인 외에 효능감 요인을 추가하여 4개 척도로 구성된 한국형 학업열의척도를 제작하였다.

요구-자원 모델: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의 예측변인

소진을 일으키는 예측변인들은 개인적 측면, 직무 측면, 환경적 측면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들 변인은 대부분 Schaufeli와 Bakker(2004)가 제안한 직무요구-자원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에 기반하여 설명되고 있다. Demerouti, Bakker, Arnold, Nachreiner, Friedhelm 및 Schaufeli, (2001)가 제시한 초기 직무 요구-자원 모형의 경우, 직무요구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물리적, 정신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특성으로 고갈과 관련이 있으며, 반면에 직무자원은 업무목표 달성과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관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요구에는 물리적 직무과부하, 시간압박, 역할갈등, 역할 모호, 타인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정서적 요구 등이 포함되고, 직무자원은 피드백, 보상, 직무통제, 의사결정참여, 고용안정, 상사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후 Schaufeli와 Bakker(2004)는 직무소진 외에 직무열의를 포함한 직무요구-자원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업무상황에서의 종업원들의 심리적, 신체적 웰빙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모델을 학업장면에 적용하면, 그림 1과 같이 요구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학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과정을 통해 소진을 유발하고, 자원의 변인들은 동기적 과정을 통해 학업열의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소진을 일으키는 예측변인은 다양하다. Caldas와 Bankston (1997)에 의하면, 저소득 가정의 학생일수록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다. 또한, 학업 과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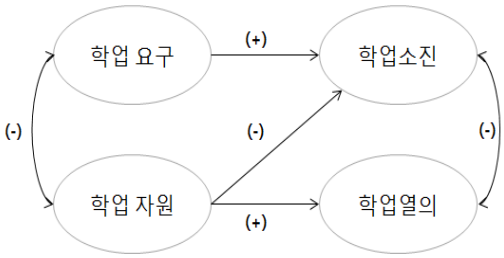

그림 1. 학업 요구-자원 모형

www.kci.go.kr

많을수록 학업소진이 더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acobs & Dodd, 2003). 발달 및 성취에 대한 도전과 압력, 시간 압박도 요구 변인들로서 학업소진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Alarcon, 2011). 특히,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기대스트레스는 자녀의 정서적 고갈과 냉소를 유발하였으며(신병창, 2012), 학습된 무기력감과 무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학업소진을 많이 경험하고, 공정성이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학교환경에 처할수록 학업소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민, 2012). 한편, 소진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은 낮은 학업소진과 관계가 있고(Yang, 2004), 학업성취도는 학업소진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uru, N., Aunolal Jari- Erik, Nurmi, Esko Leskinen, 2008). 또한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경향이 있고(이하나,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이쌍이, 2011),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라는 연구결과(구자은, 2000)를 통해 자아탄력성과 학업소진간의 부적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성격 측면에서는 5요인의 성격 특성 중 외향성, 성실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탈진, 냉담 그리고 학업무능감이 낮았다. 특히 탈진은 정서적 안정성이, 냉담과 학업무능감은 성실성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민, 2012).

학업열의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소수이지만, Alarcon(2011)의 연구에서는 목표, 우호적인 상황, 개인의 특성, 성실성, 에너지 및 사회적 지지 등은 자원에 해당하는 변인들로서 학업열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urrer(2003)에 의하면 학업열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동기와 교사 및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다. Furrer는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관계성 인식도 학업열의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aymond와 Raymond B. Millerf1, Barbara A. Greene, Gregory P. Montalvo, Bhuvaneswari, R., Joe D. Nichols(1996)는 학업열의는 다양한 목적(학습목표, 미래 예측되는 결과, 교사를 기쁘게 하는 것)과 자기조절활동, 학습전략의 사용, 노력과 지속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Assor, Kaplan 및 Yaniv, Kanat-Maymo(2005)는 교사의 직접적인 통제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교사가 빈번히 지시를 내리는 것, 아이들의 선호하는 학습의 속도를 방해하는 것,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허락하지 않는 것 등이 아이들의 분노와 불안을 야기하여 학업열의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완벽주의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질 때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성취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의식하여 오히려 성취효과가 감소되고 학습의 동기가 저하되며(심혜원, 1995), 학교환경적응에 부적응하는 경향이 높았다(김지현, 2011).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Pacht(1984)의 연구 결과,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므로 어떤 일에서도 충분한 성취감과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벽주의는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긍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는 다차원적 격

www.kci.go.kr

특질이므로,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은 자기효능감, 자율동기, 학업열의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정임, 1998).

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업요구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개인측면에서는 완벽주의, 낮은 성실성, 학업측면에서는 학업과다, 부진한 성적, 학업적 실패내성이 포함된다. 환경적 측면의 경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성적 공정성의 결여,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의 부족, 과도한 학업요구, 부정적 학교환경, 사회관계의 갈등,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업자원에 해당하는 변인 중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은 개인적인 측면이고, 자기조절학습전략, 대처전략, 학업성취도는 학업자원 변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부모의 지지나 교사 지지는 환경적 측면의 자원변인들에 해당한다.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대한 성차연구

학업소진이나 학업열의의 수준에 대한 성차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매우 미흡하다. 학업소진의 경우, 네덜란드 9학년을 대상으로 성별의 역할을 연구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업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Kiuru, Aunola, Nurmi, Leskinen, Salmela-Aro, 2008). 국내에서는 최근 한성림(2012)이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학업소진 차이 분석결과를 제시했는데, 학업소진은 성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업열의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열의의 하위요소인 학업몰입과 관련한 성차연구에서 학업과 인식의 통합, 명확한 학업목표, 과제와 능력의 조화, 시간 감각의 왜곡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업과제집중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지나, 2011). Cornwell(2011)에 의하면, 미국 초등학생 여학생이 집중력과 끈기, 배움에 대한 열의 등의 학습태도에서 남학생보다 더 뛰어났다. 특정 영역과 관련해서는 수학 과목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 태도, 열의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arkatsas, Kasimatis, & Gialamas, 2009).

학업소진이나 학업열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성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낮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자들(박용식, 1995; 이유미, 1995; 조강래, 2007)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강래(2007)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와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남학생은 공격성, 반항행동, 비행 등을 포함한 외형 행동문제가 여학생보다 많고, 집중력, 규칙수준, 대화능력, 인간관계 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윤신기(2004)와 문신정(200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김미경, 김양희, 황사라 및 정익중(2012)은 성별만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학년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쌍이(2011)나 오정희(2013)에 의하면, 학업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현희(2009)는 학업스트레스 요인으로 인간관계 및 성적에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간관계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Furrer(2003)에 의하면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성 인식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님과 친구에 대한 관계성 인식의 영향은 여학생에서 더 높았으나 교사에 대한 관계성 인식의 영향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의 5요인 특성과 학업소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개방성이 학업소진의 무능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한성림, 2012).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가 거의 없고, 국외 연구결과들도 일관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소진과 학업열의 수준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남녀 초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를 유발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요구 변인에는 완벽주의(개인 측면), 학업량 과다(학업 측면), 부모의 성취압력(환경 측면)을 포함시키고, 자원 변인은 자아탄력성(개인 측면), 자기조절학습전략(학업 측면), 부모 및 교사의 지지(환경 측면)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요구-자원 모형의 학업장면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남녀 모두에서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경기지역의 초등학생 4-6학년 521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들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260명(49.9%), 여자 261명(50.1%)이었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 195명(37.4%), 5학년 131명(25.1%), 6학년 195명(37.5%)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지각하는 성적 분포를 보면 최상위권 38명(7.5%), 상위권 123명(24.6%), 중상위권 140명(26.9%), 중위권 131명(25.1%), 중하위권 44명(8.4%), 하위권 32명(6.1%), 최하위권 8명(1.5%)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으로는 4명(.8%)이 있었다.

측정도구

자아탄력성 척도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바탕으로 박은희(1997)가 제작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40문항 중 요인별 대표문항 3개씩 15개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는 Frost(1990)의 F-MPS (Frost-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정승진(199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

www.kci.go.kr

문항 중 대표문항 6개를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4이었다.

자기조절학습전략 척도

자기조절학습전략 척도는 Zimmerman과 Martin(1986)의 척도를 김용수(1998)가 번안하여 사용한 검사지를 바탕으로 차영희(2009)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의 총 30문항 중 대표문항 16개를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부모의 성취압력척도

부모의 성취압력척도는 김기정(1984)의 부모양육태도 검사와 김경옥(1992)의 성취압력 검사를 재구성한 강영철(2003)의 척도 15문항 중 대표문항 5개를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3이었다.

학업과다척도

학업과다척도는 Jayaratne과 Chess(1981)가 개발한 직무특성 척도 중 업무과다 문항을 윤부성(200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중 업무과다를 학업과다로 수정하여 학업과 연관성이 있는 3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승미(1998)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바탕으로 백미숙(2011)이 재구성한 10문항으로, 부모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 각각 5문항씩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1과 .92로 나타났다.

학업소진 척도

조주연과 김명소(in press)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Korean Academic Burnout Scale-Elementary Student Survey: KABS-ESS)가 사용되었으며, 이 척도는 7개 요인(정서적 탈진, 신체적 탈진, 인지적 탈진, 반감, 회피, 냉소, 비효능감)의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기존의 척도와 달리 초등학생의 소진 특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척도로서,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소진 .84, 신체적 소진 .83, 인지적 소진 .81, 반항적 태도 .86, 회피 .86, 냉소 .89, 무능력 .93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 척도

학업열의 척도는 Schaufeli와 동료들(2002a; 2002b)의 척도를 바탕으로 이자영과 이상민(2012)이 개발한 한국형 학업열의척도(KAEI)로서,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16개 문항 중 대표문항 8개를 선정하여 초등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고,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활기 .59, 몰두 .74, 헌신 .54, 효능감 .7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의 남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와 관련된 예측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남녀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남녀 초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를 촉진하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요구-자원

www.kci.go.kr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남녀차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 과

학업 요구 · 자원과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서의 남녀차이

성별에 따라 학업요구 및 학업자원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자원과 요구 변인의 남녀평균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원 변인은 여학생(M=3.69, sd=0.71)이 남학생(M=3.51, sd=0.70)보다 더 높았지만, 요구 변인에서는 남학생(M=2.74, sd=0.64)이 여학생(M=2.58, sd=0.70)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1, p<0.004). 구체적으로, 자원 변인에서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의 평균은 남자(각각 M=3.49, sd=0.74; M=3.22, sd=0.87)보다 여자(각각 M=3.64 sd=0.72; M=3.51 sd=0.82)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각각 t=-2.32, p<0.02; t=-3.84, p<0.000). 한편, 요구 변인의 경우 부모성취압력에서만 남

표 1. 성별에 따른 학업요구 · 자원 평균차이 분석

	성별	M(SD)	N	t	df	유의확률
자원 변인	남자	3.51(.70)	241	-2.91	504	.004
	여자	3.69(.71)	265			
자아탄력성	남자	3.49(.74)	257	-2.32	514	.021
	여자	3.64(.72)	259			
자기조절 학습전략	남자	3.22(.87)	254	-3.84	510	.000
	여자	3.51(.82)	258			
부모 지지	남자	4.14(.93)	260	-1.56	519	.119
	여자	4.26(.92)	261			
교사 지지	남자	3.26(1.12)	259	-1.47	517	.141
	여자	3.41(1.14)	260			
요구 변인	남자	2.74(.64)	241	2.77	504	.006
	여자	2.58(.70)	265			
완벽주의	남자	2.79(.79)	260	-.42	519	.673
	여자	2.82(.84)	261			
학업과다	남자	2.28(1.03)	260	.93	514.424?	.355
	여자	2.19(1.14)	261			
부모성취압력	남자	3.17(.92)	259	5.83	516	.000
	여자	2.71(.86)	259			

www.kci.go.kr

학생의 평균(M=3.17, sd=0.92)이 여학생의 평균(M=2.71, sd=0.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83, p<0.000).

다음으로,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서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학업소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t=-1.80,

표 2. 성별에 따른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평균차이 분석

	성별	M(SD)	N	t	*df*	유의확률
학업소진	남자	1.86(.76)	251	1.80	503	.073
	여자	1.75(.68)	254			
무능력	남자	1.80(.99)	259	-.57	518	.569
	여자	1.85(1.06)	261			
회피	남자	2.64(1.26)	256	2.12	504.557	.034
	여자	2.41(1.12)	258			
냉소	남자	1.85(1.03)	257	1.88	503.095	.061
	여자	1.69(.89)	261			
정서적 소진	남자	1.59(.76)	259	4.32	470.521	.000
	여자	1.33(.55)	260			
신체적 소진	남자	1.79(.79)	260	2.12	517	.034
	여자	1.65(.70)	259			
반항적 태도	남자	1.69(.87)	260	1.74	518	.083
	여자	1.56(.78)	260			
인지적 소진	남자	1.79(.78)	259	.80	517	.424
	여자	1.74(.76)	260			
학업열의	남자	3.25(.88)	257	-2.38	511	.018
	여자	3.43(.91)	256			
활기	남자	3.24(.97)	260	-1.15	518	.252
	여자	3.34(1.02)	260			
몰두	남자	3.26(1.02)	260	-2.45	519	.015
	여자	3.48(1.04)	261			
헌신	남자	3.42(1.03)	258	-3.54	517	.000
	여자	3.73(.99)	261			
효능감	남자	2.90(1.06)	259	-.76	515	.451
	여자	2.97(1.09)	258			

www.kci.go.kr

p<0.07), 학업열의에서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38, p<0.02). 학업소진의 하위구성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회피(남학생 M=2.64, sd=1.26, 여학생 M=2.41 sd=1.12, t=2.12, p<0.03), 정서적 소진(남학생 M=1.59, sd=0.76, 여학생 M=1.33 sd=0.55, t=4.32, p<0.00), 신체적 소진(남학생 M=1.79, sd=0.79, 여학생 M=1.65 sd=0.70, t=-2.12, p<0.03)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열의도 하위구성요인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는데(남학생 M=3.25, sd=0.88, 여학생 M=3.43 sd=0.91, t=-2.38, p<0.02), 몰두(남학생 M=3.26, sd=1.02, 여학생 M=3.48 sd=1.04, t=-2.45, p<0.02)와 헌신(남학생 M=3.42, sd=1.03, 여학생 M=3.73 sd=0.99, t=-3.54, p<0.00)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녀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

초등학생의 학업소진을 예측하는 요구와 자원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러한 변인들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구-자원의 7개 하위 요소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학업소진, 학업열의를 준거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 요구 및 자원 변인 7개 중 5개가 학업소진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변량은 44%였다. 남학생의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예측변인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이며, 그 다음으로 학업과다, 교사 지지, 부모성취압력, 자아탄력성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도 5개 변인이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고, 이들의 총 설명변량은 44%이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예측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성취압력, 학업과다, 부모지지, 자기조절학습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에 따라 학업열의를 준거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에서 전체 3개의 변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변량은 60%였다. 남학생의 학업열의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은 자기조절학습전략 자아탄력성, 교사 지지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전략, 교사 지지의 3개 변인이 학업열의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변량은 63%였다.

남녀 요구-자원 모델 검증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요구-자원 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구-자원모형을 학업장면에 적용한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예측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및 남학생, 여학생 표본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남자 모형에서 RMSEA .074, 여자 모형에서는 .075로 모두 적당히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TLI와 CFI의 경우도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90보다 모두 높아서 학업장면에서의 요구 자원 모델은 남녀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남녀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2 및 3과 같다. 남녀의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 분석

www.kci.go.kr

표 3. 성별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집단	예측변인	β	R^2	ΔR^2	ΔF
학업 소진	남학생 (n=260)	자기조절학습전략	-.268	.243	.243	76.977***
		학업과다	.251	.351	.108	39.773***
		교사 지지	-.222	.403	.052	20.839***
		부모성취압력	.150	.423	.020	8.149**
		자아탄력성	-.161	.436	.013	5.569*
	여학생 (n=261)	자아탄력성	-.256	.286	.286	98.573***
		부모성취압력	.227	.376	.090	35.122***
		학업과다	.175	.403	.028	11.394***
		부모 지지	-.167	.425	.022	9.282***
		자기조절학습전략	-.193	.443	.018	7.687***
학업 열의	남학생 (n=260)	자기조절학습전략	.421	.512	.512	257.717***
		자아탄력성	.374	.589	.078	46.461***
		교사 지지	.111	.601	.011	6.751*
	여학생 (n=261)	자아탄력성	.416	.550	.550	302.511***
		자기조절학습전략	.368	.618	.069	44.502***
		교사 지지	.111	.627	.009	5.948*

p<.05, **p<.01, ***p<.001

표 4. 모델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전체 요구 자원 모델	278.272	115	.914	.936	0.074
남학생 요구 자원 모델	285.026	115	.916	.938	0.075
여학생 요구 자원 모델	398.763	115	.927	.945	0.069

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두 집단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기저모형)을 비교하는데, 카이제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모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Byrnem 2001). 본 연구의 모형 내에 존재하는 3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지저모형과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Delta\chi^2$= -2.735, p= .434).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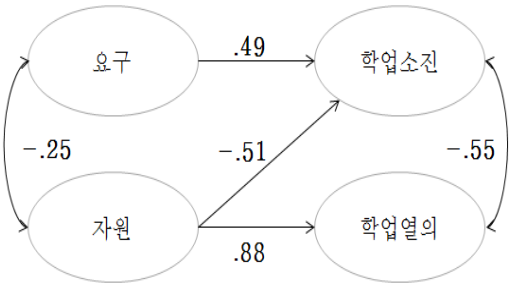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 모형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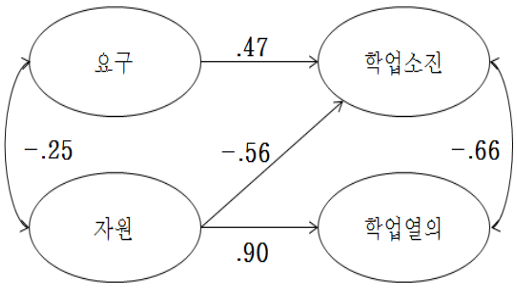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 모형의 경로계수

표 5.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간의 남녀집단 차이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 변화량	χ^2 변화량	유의확률
요구 → 학업소진	1	-0.215	.643
자원 → 학업소진	1	-0.019	.891
자원 → 학업열의	1	-2.415	.12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부여	3	-2.735	.434

p<.05, **p<.01, ***p<.001

이를 통해 모든 경로계수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최근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해 탐색하고 관련변인을 찾아내려는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수준과 영향력이 심각한 만큼 학업소진을 줄이고 학업열의를 일으킬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 그리고 학업요구 및 자원 변인들에 대한 성별 차이분석을 통해 남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남녀 초등학생의 학업소진과 열의 감소 및 유발시키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요구-자원과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서 남녀 차이를 파악한 결과, 학업자원 변인들 중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고, 반면에 학업요구 변인의 경우 부모성취압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자원 변인들 중 자아탄력성 변인에서 여학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여학생의 대인관계와 감정통제, 자아탄력성이 남학생에

www.kci.go.kr

비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들(임양미, 2013; 박상희, 2009; 이상미, 이희선, 2008; 이은미, 박인전, 2002; 이쌍이, 2011, 차은주; 2010; Block & Kremen, 1996)을 뒷받침한다. 또한 집중력, 규칙수준, 대화 능력, 인간관계 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조강래, 2007; Cornwell, 2011)와도 관련성이 높다.

반면 남학생이 부모성취압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성취압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박수자(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조강래(2007)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희진(1982)의 연구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성취 욕구가 높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성취 압력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부와 성공에 대한 부모의 압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로부터 공부와 성공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으며, 공부를 잘 해야만 잠재력을 개발하고 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혜원, 조성연, 김민, 2009).

다음으로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의 전체 평균 차이 분석 결과, 학업열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몰두와 헌신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업몰입 요인들 중 학업과제집중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윤지나(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Cornwell(2011)도 여학생의 집중력과 끈기, 배움에 대한 열의 수준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학업소진 전반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업소진의 하위 구성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회피, 정서적 소진, 신체적 소진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도피적이고 체념적인 행동을 보이며, 높은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박수자, 1996; 김종서, 1983; 정지선, 2007; 김별님, 2012 재인용)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성취압력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서적 소진의 경우 남녀별 학업스트레스에 있어서 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조강래(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요구-자원의 7개 변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의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예측변인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과다, 교사 지지, 부모성취압력, 자아탄력성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의 경우는 자아탄력성, 부모성취압력, 학업과다, 부모 지지, 자기조절학습전략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즉, 남학생은 자기조절학습전략, 교사 지지, 자아탄력성이 소진을 감소시키며, 학업과다와 부모성취압력이 학업소진을 촉진한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과 부모 지지,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업소진을 감소시키며, 부모성취압력과 학업과다가 학업소진을 유발한다. 이를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소진을 유발 및 감소시키는 주요 변인들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중요도 및 가중치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www.kci.go.kr

있다. 특히 학업소진을 감소시키는 자원 변인들에서 주요 남녀 차이로는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 남학생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남학생에게는 교사 지지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주요 예측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조절학습전략이란 학습 목표의 설정, 학습 속도 조절, 학습 환경 선택, 학습결과 평가 등 학습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학습자 스스로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미경(2007)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은 학습하는 과제의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과 학습 성취의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취목표지향성이 높고, 성취지향적인 경우 자기조절학습, 학습전략, 학습기술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국중학, 2009; 나동진, 2010; 신현숙, 류정희, 안정은, 2010; 신이나, 2011 재인용)를 고려할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더 주요하게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교사 지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여학생의 경우 소진의 감소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고,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므로 남학생에게 교사의 지지와 인정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동기와 학업열의를 높이는데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성이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Furrer (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부모의 지지가 여학생들에게 중요한 예측변인이라는 연구결과도 기존 연구들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간의 관계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지지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취동기와 자신감이 높았고(오정희, 2013),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더 중요하게 지각하였다(이경주, 신효식, 1997). 박성혜(1994)도 학령기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를 더 지지적인 관계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남녀에 따라 학업열의를 준거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 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열의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은 공통적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 자아탄력성, 교사지지로 나타났다. 이는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자기조절활동, 학습전략의 사용 등이 학업열의와 연관된다는 Raymond(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Assor와 동료들(2005)도 교사의 직적접인 통제 행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동기 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교사 지지가 남녀 모두에게 학업열의를 일으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나 부모 지지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도출되지 않은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대한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보다는 교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요구-자원 모형을 검증한 결과, 학업장면에서의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이 지지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물론 남학생, 여학생 표본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가 도출되었다. 모형의 부합도 외에 남녀의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등가제약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요구-자원

www.kci.go.kr

모형의 학업장면에 대한 타당성의 지지되었을 뿐 아니라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대한 요구-자원 모형이 남녀 모두에서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미흡한 초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남녀 초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의 차이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학업장면에 적용하여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반적 부합도 뿐 아니라 경로계수에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타당도를 검토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학업 요구 및 자원 변인들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유발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담 및 교육(학생, 교사, 부모)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용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의 상담 장면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학생들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양성평등적인 개발과 학교생활적응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생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초등학생 전반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열의 척도의 문항수가 적어서(즉, 각 요인별로 2개씩) 일부 하위척도(활기, 헌신)의 신뢰도가 .59와 .54로 낮게 나타났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본 척도의 전체 문항을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요구 및 자원 요인들이 사용되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학업 변인들 외에 다양한 개인적, 학업적, 환경적 요구 및 자원 요인들을 포함하여 학업장면의 요구-자원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성별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철 (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 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재홍, 윤경란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1), 185-212.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남기 (2011). 영업사원의 지각된 감정노동활동이 직무소진, 직무열의에 의한 이직 의도와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감정 지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대현 (2011).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 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별님 (2012). 부모의 성취압력동기와 스트레스

www.kci.go.kr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미경, 김양희, 황사라, 정익중 (2012). 고등학생의 성적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65-187.

김종미 (2001).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성취도에서의 성차 분석. 論文集, 43, 39-55.

김지영, 서영숙 (2011). 학년별,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진로발달간 관계 비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0(3), 103-120.

김지현 (2001). 완벽주의 성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완벽주의 성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희 (2009).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와 시험불안과의 관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원, 조성연, 김민 (2009). 남녀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비교: 공부의 중요성 인식, 공부에 대한 부모압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2, 206-207.

뉴스와이어 (2013). 2013. 05. 30 초등학생 스트레스 원인 1위 '학업'. http://media.daum.net/ press/newsview?newsid=20130530134817858.

문신정 (2004).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상희 (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회, 16(2), 59-81.

박성혜 (1994). 아동의 사회적 계망인식에 있어서 연령과 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수자 (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속도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용식 (1995). 아동의 학습 스트레스와 학업성적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은희 (1997).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혜정 (2009). 학업 스트레스, 통제소재, 우울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미숙 (2011).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소진에 대한 학업환경과 대처의 영향.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병창 (2012). 초등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기대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혜원 (1995). 완벽주의 성향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성가족재단 (2010). 서울시 아동청소년 안전 및 건강실태조사. 서울: 여성 가족재단.

오정희 (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부성 (2000). 아내학대 관련기관 상담 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신기 (2004). 초.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

www.kci.go.kr

레스 경험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지나 (2011). 전공계열에 따른 조직문화가 팔로우십 및 학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경주, 신효식 (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이미자 (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과의 관계 및 조절효과 탐색.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상미, 이희선 (2008).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10), 147-157.

이상민 (2012).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소진 진행과정 및 경로분석. 서울: 집문당.

이쌍이 (2011).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복 (2009). 청소년의 학업 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개발 및 타당화. 교육학연구, 15(3), 59-78.

이유미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지 적 평가에 관한 연구: 광주직할시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이하나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표현 및 갈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양미 (2013).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25(2), 147-167.

정미경 (2007). 자기조절학습과 창의적·비판적 사고력간의 관계. 영재와 영재교육, 6(1), 163-182.

정승진 (1999). 완벽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강래 (2007). 고 3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원(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증상과 대처방식: 일반계 고등학생 남녀 비교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주연, 김명소 (인쇄 중). 한국형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KABS-ESS) 개발 및 타당화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구 대한가정학 회지) 2014년 2월 28일 52권 1호 게재 예정.

조희진 (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차영희 (2009).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차은주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간의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www.kci.go.kr

최정임 (1998). 완벽주의 성향, 시험 불안, 학업 성취도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태산, 이은희, 서미정 (2000). 상담 및 심리치료: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학교스트레스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0, 178-179.

통계청 (2009). http://kostat.go.kr/portal/ 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66251.

한국일보 (2013. 01. 04).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태도 우수. jamich@yna.co.kr

한성림 (2012). 중학생의 5요인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업소진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larcon. G. M., Edward. J. M. & Menke. L. E. (2011). Student burnout and engagement: A test of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The Journal of Psychology, 145*(3), 211-227.

Assor, A., Kaplan, H., & Kanat-Maymon, Y., Roth, G. (2005). Directly controlling teacher behaviors as predictors of poor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anger and anxiety. *Learning and Instruction, 15*(5), 397-413.

Barkatsas, A. T, Kasimatis, K. & Gialamas, V. (2009). Learning secondary mathematics with technology: Exploring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ttitudes, engagement, gender and achievement. *Computers & Education, 52*(3), 562-570.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Block, J., Kremen, Adam,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Caldasa, S. J., & Bankstona, C. (1997). Effect of school population socioeconomic status on individual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0*(5),

Cohen, J. and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J.

Cornwell, C. M., Mustard, D. B. & Parys, J. V. (2011). Non-cognitive skills and gender disparities in test scores and teacher assessments: evidence from primary school. Discussion paper No. 5973.

Demerouti, E. Bakker, Arnold B., Nachreiner, Friedhelm, Schaufeli, Wilmar, B.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6*(3), Jun 2001, 499-512.

Furrer, Carrie, Skinner, Ellen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Gan, Y., Shang, J. Y. & Zhang, Y. G. (2007). Coping flexibility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burnout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5*(8), 1087-1098.

Jacobs, S. R. & Dodd, D. (2003). Student burnout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workload.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3), 291-303.

www.kci.go.kr

Kiuru, N., Aunola, K., Jari-Erik Nurmi, J. E., Esko Leskinen, E., Salmela-Aro, K. (2008). Peer group influence and selection in adolescents' school burnout: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54*(1), 23-55.

Maslach, C. & Jackson, Susan,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99-113.

Pacht, Asher R. (1984). Reflections on perfen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Raymond B. Millerf1, Barbara A. Greene, Gregory P. Montalvo, Bhuvaneswari, R., Joe D. Nichols (1996). Engagement in academic work: The role of learning goals, future consequences, pleasing others, and perceived ability.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21*(4), 388-422.

Schaufeli, W. B., Martez, I. M., Marques Pinto, A., Salanova, M., & Bakker, A. B. (2002a).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ailes-roma., V. (2002b). The measurement of burnout and engage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71-92.

Schaufeli, W. B. & Bakker, A. B. (2004).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293-316.

Yang, H. J. (2004). Factors affecting student burnou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ultiple enrollment programs in Taiwan's technical-vocational colleg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1*, 153-162.

1차원고접수 : 2013. 8. 12.
심사통과접수 : 2013. 12. 16.
최종원고접수 : 2013. 12. 27.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3, Vol. 18, No. 4, 477-497

Gender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o, Jooyon **Kim, Myoung So**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Ho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a basic work to improve adaptation of school lif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which (1) examines whether there is difference between gender in terms of the level of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2) investigates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 on the influence of academic burnout and main predictors, and (3) explores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 is made when Schaufeli and Bakker(2004)'s demand-resource model 78 applied to academic scene. For this, KABS-ESS and related scale. Recently developed by Jooyon Cho & Myoung So Kim(2013), were conducted to 531 elementary school study on 4-6th grade in Ky ŏnggi area. First, as a result of gender difference analysis o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was indicated that girls are higher than boys on academic engagement at the significant level,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shown on academic burnout.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subordinating factors of academic burnout, the gender difference was indicated specifically boys were higher than girls on avoidance, cynicism, emotional burnout and physical burnout. Second, after conducting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 on the influence of academic burnout predictors, the primary valuables which explains boy's academic burnout were self-regulation strategy, excessive work, teacher's support,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resilience and girl's primary valuables were resilience,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excessive academic work, parent's support, and self-regulation learning. Moreover, as a result of conduc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engagement as criteria valuables, primary valuables which explains boy's academic engagement were indicated as self-regulation learning strategy, resilience, teacher's support and in the case of girls, resilience, self-regulation learning strategy, teacher's support was revealed as significant predictors. Lastly, after adapting job demand-resource model through Amos to academic scene,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of model was drawn at acceptable level to both men and women and the possibility of generalization of the model was support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 implication, limita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proposed.

Key words : elementary student, academic burnout, academic engagement, gender difference, demand-resource model

www.kci.go.kr